한국구술인물사 / 여 익 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③

민중불교 태동시킨 선지식, 탄허 스님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본 구술에는 HD급 촬영 카메라를 활용했다. 여익구 선생은 카메라 앞에서 6시간 동안 자신의 생애사를 구술했다. 그 가운데 이른바 '민중불교회'를 조직하고 출가해 승려가 되는 과정에서 탄허 스님과의 인연을 회고한 부분을 발췌했다.

①구산 스님 경봉 스님 당대에 뭐… 어르신이란 거는 다 찾아본 거죠. 그 때 최범술(효당) 스님도 찾아봤어요. "역사적인 것을 할 때는 불교인으로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효당이.

②그 때 탄허 스님 찾아뵈니까, 탄허 스님도 최범술씨랑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③'민중불교회'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서. 그래 그 때 전재성이라는 아시나 모르겠네요.

④고준환 뭐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전에도 가끔 봤었으니까 불교학생회 하면서 최연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쭉 만나면서 우리 같이 독서서클을 하나 만들자 불교계에.

⑤저는 황석영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황석영이를.

⑥고은 시인. 찾아가지고 같이 '민중불교회'를 했어.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씩 탄허 스님 만나 (개운사) 대원암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일종의 불교 엘리트 조직을 만들겠다고 그런 거죠. 불교역사 의식화를.

⑦안기부(중앙정보부)에 포착이 된 거야.

여익구는 1974년 민청학련에 연루되었다가 이듬해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그 때는 불교계의 고승들을 찾아 방문하던 시기였고, 또 전재성과 최연은 대불련의 중심 인물로 부상하던 때였다. 대불련에서 외연을 확대하려는 의도와 여익구의 활동이 맞아떨어지면서 탄허 스님을 중심으로 독서클럽이 조직됐다.

탄허 스님이 주석하며 〈신화엄경합론〉을 저술했던 서울 안암동 대원암, 이곳에서 독서클럽인 민중불교회가 결성됐다.

탄허 스님을 마을 사람들이 당대의 천재로 여겼던 것처럼 여익구도 말한다. 그 탄허 스님은 명석한 불교인 엘리트들을 키우고 싶어했다. 그렇게 해서 민중불교회가 조직된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민중불교회라는 이름을 내 건 것이 아니었다. 여익구는 수사관들이 사건화시키기 위해 이름을 붙여준(?) 결과였다고 한다. 여익구의 구술에 따르면 제2의 민청학련과도 같은 사건으로 확대시키고자 했던 것이 당국의 의도라고 말한다.

탄허 스님의 뛰어난 필치, 그리고 감동을 주는 법석은 불자들과 세인들을 놀라게 했다. 많은 대중이 탄허 스님을 존경했다. 스님은 역사 인식과 함께 국가발전이라는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민중들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탄허 스님의 이른바 엘리트운동은 여익구 등을 통한 민중불교운동의 지원으로 나타났다.

탄허 스님은 오랫동안 동국대학교 정각원과 동국역경원과 관계했고, 특히 삼보법회 단체를 지원했다. 삼보법회는 장학금을 조성하여 불교인 엘리트들을 양성한 요람이었다. 어찌보면 청년들에 대한 탄허 스님의 인식은 크게 이상한 것도 아니다. 엄혹했던 유신시절에 탄허 스님이 항거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불교인 엘리트 양성. 민중불교회의 독서토론은 1975년 초봄부터 여러 달 동안 탄허 스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당국에 의해 해체되었다. 그러나 민중불교회의 씨앗은 1980년대 활발했던 불교운동으로 이어진다. '정토구현전국승가회' 등 크고 작은 불교단체들이 군부독재에 항거했다. 그 뿌리를 찾는다면 탄허 스님이 주재했던 민중불교회로 귀결된다.

이후 여익구는 출가하여 효당으로부터 불교학을 배우고, 다시 탄허 스님의 품에 안긴다. 1975년 당시 대불련 회장이었던 전재성은 활발한 불교운동을 주도했고, 최연은 이듬해 대불련 회장이 된다. 그 해 대불련은 전북 완주의 송광사 수련회에서 '민중불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불교계에 민중불교운동이 확대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④

잡초 속 하얀 연꽃 피우게 했던 승가의 결사

19세기 후반 불교계는 근대를 향한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불교의 존립과 전통적 신앙수행의 유지,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흐름으로 사찰계(寺刹契)와 신행결사, 선(禪)의 중흥 노력 등이 있었다.

경허 선사는 1899년 해인사에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시작한 이래 1903년까지 통도사, 범어사, 화엄사, 송광사 등의 선원을 복원하고 선수행을 이끌었다.

근대선원의 최초라 할 수 있는 해인사 퇴설선원은 경허 선사를 조실로 모시고 1899년 11월 동안거에 17명의 정진대중으로 개설됐다. 이는 근대선원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찰계와 신행결사는 어려운 사찰의 재정을 지원해 가람을 중수하고 사찰 전답을 늘리는 데 힘을 보탰다. 공동체적 신앙활동을 유지하는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만일염불회(萬日念佛會)는 만일동안 즉, 28년간 염불하는 대중적 결사로, 건봉사 신계사 유점사 화계사 흥국사 등에서 만일염불회가 열렸다.

이러한 흐름은 훗날 경봉 선사가 통도사 극락암에서 1925년 10월 '염불수심(念佛修心)'과 '광도중생(廣度衆生)'을 목적으로 정한 '양로염불만일회(養老念佛萬日會)'를 결성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한 불교계의 과제는 친일적 요소의 제거와 교단의 혁신문제였다. 이후 불교정화의 기간인 1954년에서 1970년 대처 측의 태고종 등록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맞이한다.

해방 이후 불교계는 총림(叢林)이 건설되고 새로운 선풍(禪風)이 일어나고 많은 불교교육기관, 불교단체, 불교 언론 등 다각적인 면에서 발전돼 왔다.

이때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구하 스님(1872~1963)과 경봉 스님의 활동은 불교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다.

만일회 원주소임을 3년간 맡았던 정보우(鄭普雨) 스님이 그만두는 것에 대하여 1928년 10월 일지에 경봉 스님은 아쉬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뜰 앞에 잣나무 몇 년이나 꺾었던가
우연히 선사를 만나 함께 누대에 올랐네
결사(結社) 당시엔 잡초만 우거졌었는데
일을 이룬 지금엔 백연(白蓮)이 피었네
시냇물은 굽이 돌 때 소리가 요란하고
사람은 시비에 늙고야 도의 맛이 나네
천지가 내 집인데 어찌 이별 있으랴
밝은 달아래 한 잔 먹세 그려.

정도 스님(통도사 포교국장)

일 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3 –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운전법을 배워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을 느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 무엇에 의해 아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았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불교는 연기(緣起)적으로 설명한다. 즉 적당한 조건을 따라 아는 작용이 일어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을 느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때 '아는 작용을 하는 바로 그 자체'를 이름 하여 마음(citta, 心)이라고 한다. 즉 '대상을 아는 것 자체'가 바로 마음이다. 여기서 마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의할 점을 몇 가지만 언급한다.

첫째, 마음은 영원한 실체나 자아(自我)가 아니라 조건을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상을 볼 때는 보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소리를 들을 때는 듣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지난 일을 회상할 때는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처럼 하나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바로 다음 순간에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를 마음이 찰나생(生), 찰나 멸(滅)한다고 한다.

둘째, 마음이 찰나 생, 찰나 멸하면서 진행되지만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은 무관하지는 않으며 서로 연관되어 있다. 마치 도장을 찍었을 때 도장에 새겨진 것과 종이에 찍힌 것이 서로 다른 것이지만 연관되어 있고, 초에서 초로 촛불이 옮겨질 때 앞의 촛불과 뒤의 촛불은 다른 것이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과 같다.

셋째,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 현대의 과학자들 중에서 마음은 대뇌의 작용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과 물질은 서로 의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 마음이 눈, 귀, 코, 혀, 몸, 심장토대 등의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음과 물질은 다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일어나는데 대뇌라는 물질이 주요한 조건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지만 대뇌가 마음은 아니다. 씨앗과 열매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씨앗과 열매가 같은 것은 아닌 것처럼, 물질과 마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물질과 마음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물질 없이 마음만이 존재하는 무색계(無色界)에 대해 경전에 설명돼 있는 것을 보면 대뇌가 마음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음이 대상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불행을 느낄 수 있으며 마음을 통해서 범부가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마음을 쓰고 살면서 마음을 쓰는 방법도 모르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마치 매일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의 운전법을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처럼 매우 위험하다.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면 바른 운전법을 배워야 하듯이 삶을 행복하게 살기위해서는 마음의 운전법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끝으로 미얀마에서 딸을 가진 부모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들은 사위가 될 사람이 자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결혼 승낙을 받으러 찾아오면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자네 욕심과 성냄을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가?" 만약 안다고 대답하면 흔쾌히 승낙을 해준다. 만약 모른다고 대답을 하면 "자네는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것이고, 화가 나면 화를 다스리지 못해 아내에게 화를 퍼부을 텐데 자네를 어떻게 믿고 내 딸을 시집보내겠는가? 자네에게는 내 딸을 줄 수가 없네"라고 거절을 한다고 한다. 우리는 욕심과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가? 자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아는 작용을 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다
마음의 대상 어떻게 아느냐에 행복 달려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척추교정, 무중력 감압치료, 수술, 경락, 지압 등 대증치료를 오래도록 받았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대번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신의 상쾌함을 곧바로 몸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휜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 · 후. 항암치료 마치신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 강력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www.chgg.co.kr/b1020

책 구입시
『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정골본가(이영숙) 서울 성수동1가 14-35(우영B/D 4층) · 제2010-서울성동 0204호 · 207-01-43500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책신청 : 054)637-9810